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과 중국간 무역구조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杜 鎭

2012年 8月

한국과 중국간 무역구조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永春

杜 鎭

이 논문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杜鎭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2年 8月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 2  |
| II. 한중 무역구조 변화 .....       | 3  |
| 1. 한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입구조 .....  | 3  |
|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 | 3  |
| 2) 한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 9  |
| 2. 중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입구조 .....  | 13 |
| 1)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 | 13 |
| 2) 중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 15 |
| 3. 한중간 무역구조 변화 .....       | 19 |
| 1) 한중간 수출입구조 변화 .....      | 19 |
| 2) 한중간 품목별 변화 .....        | 21 |
| 3)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변화 .....     | 23 |
| III. 중국과 한국의 비교우위 분석 ..... | 28 |

|                             |    |
|-----------------------------|----|
| 1. 국제경쟁력의 개념 및 이론.....      | 28 |
| 1) 국제경쟁력의 개념.....           | 28 |
| 2) 비교우위의 측정방법.....          | 30 |
| 2. 한중 무역 비교우위 분석.....       | 34 |
| 1) MCA 분석결과.....            | 34 |
| 2) TSI 분석결과.....            | 38 |
| 3) 산업내무역지수 분석결과.....        | 39 |
| 4) 한중 상호의존도 분석결과.....       | 41 |
| 5) 한중 비교우위 품목.....          | 42 |
| IV. 한중 무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6 |
| 1. 한중 무역구조 문제점.....         | 46 |
| 2. 한중 무역구조 개선방안.....        | 50 |
| 3. 한중 무역의 전망.....           | 60 |
| V. 결론.....                  | 63 |
| 참고문헌.....                   | 66 |
| 영문초록.....                   | 69 |

## 표 목 차

|                                   |    |
|-----------------------------------|----|
| <표 2-1> 한국 국내총생산의 항목별 증가율 .....   | 4  |
| <표 2-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 6  |
| <표 2-3> 2011년 주요 국가의 무역량 .....    | 7  |
| <표 2-4> 2011년 한국의 수출입 구가 비중 ..... | 8  |
| <표 2-5>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9  |
| <표 2-6>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      | 10 |
| <표 2-7>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변화.....      | 12 |
| <표 2-8>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변화.....      | 13 |
| <표 2-9>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 14 |
| <표 2-10> 중국 산업별 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 15 |
| <표 2-11> 중국의 주요 수출입국 비중 .....     | 16 |
| <표 2-12> 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17 |
| <표 2-13>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     | 19 |
| <표 2-14>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수출입 변화.....  | 20 |
| <표 2-15> 중국의 대한국 연도별 수출입 변화.....  | 21 |
| <표 2-16> 한국의 10대 대중국 수출 품목.....   | 22 |
| <표 2-17> 한국의 10대 대중국 수입 품목.....   | 23 |
| <표 2-18> 한국 대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구조..... | 25 |
| <표 2-19> 한국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 | 26 |
| <표 2-20> 한국 대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 | 27 |
| <표 3-1>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 36 |
| <표 3-2> HS code 2단위 품목분류.....     | 37 |

|                                |    |
|--------------------------------|----|
| <표 3-3> 한국의 대중국 TSI 지수.....    | 39 |
| <표 3-4> 산업내무역지수 .....          | 40 |
| <표 3-5>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지수 .....  | 41 |
| <표 3-6> 한중 비교우위 품목 .....       | 45 |
| <표 4-1> 중국의 대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 | 49 |
| <표 4-2>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변화.....  | 50 |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범위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파트너이자 라이벌의 위치에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대외무역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세계를 위협하는 무역대국이 되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간 각 분야에서의 협력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7월 이후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추월한 한국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에 있어 제3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양국간 경제적 관계는 매우 긴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산업구조는 더욱 고도화되고 많은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맞물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을 예고하며 이미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국에게 위협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게 광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획의 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의 동조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과 중국의 무역동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의 확대 및 협력 강화가 야기한 무역구조의 고도화와 투자협력의 상호화라는 새로운 체제변화는 향후 양국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전망함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한국과 중국의 무역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입 구조 및 양국의 비교우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중 무역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양국간 무역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므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무역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한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자료가 기초자료가 되었다. 전반적인 무역관련 통계자료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경제 발전과 수출입구조 및 중국 경제 발전과 수출입구조를 분석하였고, 이어 한국과 중국 양국간 무역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먼저 비교우위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양국간 품목별 비교우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 무역의 향후 전망과 아울러 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 Ⅱ. 한중 무역구조 변화

### 1. 한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입구조 변화

####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 가) 한국의 경제발전 현황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38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GDP의 실질 성장률은 2002년 7.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4~5%로 둔화되었으며, 2011년에는 3.6%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소비지출 역시 2002년 8.1%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가 2005년 약간 회복하였으나 2011년 다시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국제 유가 상승과 하반기의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투자(총 고정자본형성) 역시 2002년 7.1% 성장 이후 크게 위축되어 2011년에는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은 2001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는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세계경기불황의 여파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표 2-1> 한국 국내총생산의 항목별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국내총생산<br>(명목)     | 5,046 | 5,759 | 6,436 | 7,224 | 8,447 | 9,511 | 10,593 | 9,287 |
| 국내총생산<br>(실질성장률)  | 4.0   | 7.2   | 2.8   | 4.6   | 4.0   | 5.2   | 5.1    | 2.2   |
| 최종소비지출<br>(실질성장률) | 5.5   | 8.1   | 0.5   | 1.0   | 4.6   | 5.1   | 5.1    | 1.6   |
| 총고정자본형성           | 0.3   | 7.1   | 4.4   | 2.1   | 1.9   | 3.4   | 4.2    | -1.7  |
| 수출                | -3.4  | 12.1  | 14.5  | 19.7  | 7.8   | 11.4  | 12.6   | 5.7   |
| 수입                | -4.9  | 14.4  | 11.1  | 11.7  | 7.6   | 11.3  | 11.7   | 3.7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나)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한국 경제에 있어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 및 고용비중은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변화형태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바라본 제조업의 비중은 1989년의 27.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년에는 19.2%까지 감소하는 등 고용비중의 관점에서 바라본 탈공업화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 GDP로 측정한 국내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 기준 33.4%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질생산비중이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경제의 탈공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지난 10여 년간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992~2004년 기간 중 GDP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은 8.3%에서 4.0%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 다시

크게 높아져 2000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2년 26.6%에서 2000년 29.4%, 2004년 28.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2년의 65.1%에서 2004년에는 67.2%로 2%p 가량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비중 증가는 전자, 수송기기 및 기계 산업의 비중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높아진 데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한 데 기인한다.

전기·전자, 수송기기 및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기계 산업은 최근 들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생산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전기·전자, 수송기기 및 기계 산업 비중을 보면 1992년 8.2%에서 2000년 13.1%, 2004년 13.4%로 증가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990년대 후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992년 수준을 크게 밑 돌았으나 2004년에 큰 폭으로 높아져 1990년대 전반기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비에너지 다소비 산업 가운데 전기·전자, 수송기기 및 조선업을 제외한 식음료, 섬유 등 기타 비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2-2>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 1992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1차 산업 계        | 8.3   | 6.9   | 5.3   | 4.9   | 4.4   | 4.1   | 4.0   |
| 농림업            | 7.0   | 5.8   | 4.4   | 4.1   | 3.8   | 3.5   | 3.4   |
| 수산업            | 0.7   | 0.6   | 0.4   | 0.4   | 0.3   | 0.3   | 0.3   |
| 광공업            | 0.6   | 0.6   | 0.4   | 0.4   | 0.3   | 0.3   | 0.3   |
| 제조업 계          | 26.6  | 27.6  | 29.4  | 27.6  | 26.9  | 26.4  | 28.7  |
| 석유화학 및 화학      | 3.0   | 3.2   | 2.9   | 2.8   | 2.9   | 2.9   | 3.2   |
| 비금속광물          | 1.9   | 1.4   | 1.1   | 1.2   | 1.1   | 1.1   | 1.0   |
| 철강             | 3.6   | 3.9   | 3.8   | 3.5   | 3.4   | 3.4   | 4.1   |
| 에너지다소비산업 계     | 8.5   | 8.5   | 7.8   | 7.4   | 7.4   | 7.4   | 8.3   |
| 식음료            | 2.2   | 2.0   | 2.0   | 1.9   | 1.9   | 1.8   | 1.8   |
| 섬유 및 섬유제품      | 2.3   | 1.8   | 1.8   | 1.6   | 1.3   | 1.1   | 0.9   |
| 가죽 및 가죽제품      | 0.8   | 0.3   | 0.3   | 0.3   | 0.2   | 0.2   | 0.2   |
| 목재 및 목제품       | 0.5   | 0.5   | 0.4   | 0.4   | 0.4   | 0.4   | 0.4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4   | 1.5   | 1.3   | 1.2   | 1.2   | 1.1   | 1.0   |
| 코크스, 정유업       | 1.3   | 0.9   | 1.2   | 1.2   | 1.1   | 1.2   | 1.4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1.1   | 1.1   | 1.2   | 1.2   | 1.2   | 1.2   | 1.1   |
| 기계 및 장비        | 1.7   | 2.2   | 2.4   | 2.2   | 2.1   | 2.1   | 2.2   |
| 전기, 전자 제품      | 3.5   | 5.2   | 7.4   | 6.3   | 6.4   | 6.4   | 7.7   |
| 수송기기           | 3.0   | 3.3   | 3.3   | 3.6   | 3.3   | 3.3   | 3.5   |
| 기타 제조업         | 0.4   | 0.3   | 0.3   | 0.3   | 0.2   | 0.2   | 0.2   |
| 비에너지다소비산업 계    | 18.1  | 19.1  | 21.6  | 20.2  | 19.5  | 19.0  | 20.4  |
| 서비스업 계         | 65.1  | 65.4  | 65.3  | 67.5  | 68.7  | 69.5  | 67.2  |
| 국내 총 부가가치(GDP)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장석인, “산업구조변화와 환경분제의 관계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05, p. 14

## 2) 한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가) 한국의 무역현황

2011년 기준 한국은 5,636억 달러를 수출하고, 5,244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총 무역액은 10,88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총 무역액 기준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은 14,807억 달러, 수입은 22,650억 달러로 총 무역액은 37,457억 달러이다.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이 19,014억 달러로 1위이고, 수입에 있어서는 미국이 22,65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액 기준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 4위는 일본의 순이다. 한국의 무역량은 세계 1위인 미국의 1/3수준이다.

<표 2-3> 2011년 주요 국가의 무역량

(단위: 백 만불)

| 순위 | 국가 | 수출        | 수입        | 총 무역      |
|----|----|-----------|-----------|-----------|
| 1  | 미국 | 1,480,728 | 2,265,010 | 3,745,738 |
| 2  | 중국 | 1,901,477 | 1,741,449 | 3,642,926 |
| 3  | 독일 | 1,392,159 | 1,239,720 | 2,631,879 |
| 4  | 일본 | 824,525   | 853,961   | 1,678,486 |
| 7  | 한국 | 563,571   | 524,436   | 1,088,007 |

주: 순위는 총 무역액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비중을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별 수출에서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의 총수출에서 22%를 차지하였다. 2위는 미국이고 한국의 총수출에서 11%를 차지하였다. 3위는 일본이고 총수출에서 7%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 미국, 일본의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가별 수입에서 1위는 중국이고 한국의 총수입에서 18%를 차지하였다. 2위는 일본이고 총수입에서 14%를 차지하였다. 3위는 미국이고 총수입

에서 9%를 차지하였다. 이들 3국의 비중이 41%로 수출과 유사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출국 중에서 주요 중국, 미국과 일본 3국 외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독일, 러시아, 멕시코와 인디아 등이 있고 이들 7국의 비중이 22.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국 중에서는 제4위부터 제10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이 많아 한국의 수입에 있어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2-4> 2011년 한국의 수출입 국가 비중

(단위: %)

| 수출국 비중 |      |      | 수입국 비중 |           |      |
|--------|------|------|--------|-----------|------|
| 순위     | 국가   | 비중   | 순위     | 국가        | 비중   |
| 1      | 중국   | 22%  | 1      | 중국        | 18%  |
| 2      | 미국   | 11%  | 2      | 일본        | 14%  |
| 3      | 일본   | 7%   | 3      | 미국        | 9%   |
| 4      | 홍콩   | 4.7% | 4      | 사우디아라비아   | 7.8% |
| 5      | 싱가포르 | 3.9% | 5      | 아랍에미리트 연합 | 4.4% |
| 6      | 대만   | 2.7% | 6      | 호주        | 4.1% |
| 7      | 독일   | 2.5% | 7      | 독일        | 3.4% |
| 8      | 러시아  | 2.3% | 8      | 카타르       | 3.3% |
| 9      | 멕시코  | 2.2% | 9      | 쿠웨이트      | 2.8% |
| 10     | 인디아  | 2.1% | 10     | 인도네시아     | 2.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품목을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고, 2위는 무선통신기기, 3위는 자동차가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1, 2위로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이 원자재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5>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2011년 기준)

| 순위 | 수출           | 수입           |
|----|--------------|--------------|
| 1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원유           |
| 2  | 무선통신기기       | 천연가스         |
| 3  | 자동차          | 반도체          |
| 4  | 반도체          | 석탄           |
| 5  | 석유제품         | 철강판          |
| 6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석유제품         |
| 7  | 합성수지         | 컴퓨터          |
| 8  | 철강판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 9  | 자동차부품        | 철광           |
| 10 | 컴퓨터          | 원동기 및 펌프     |

주: MTI 3 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나) 한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1)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1990년 기준 한국은 650억 달러를 수출하고, 698억 달러를 수입하여, 총 무역액은 1,348억 달러였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수출은 연평균 11.0%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0.7% 증가하여, 총 무역은 연평균 10.8% 증가하였다. 2005년 한국의 총 무역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 8,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간을 5년 단위로 보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외 기간에는 대체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의 3년 동안 무역 증가율 특히 수입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단위: 백 만불, %)

| 연도                | 수출        | 수입      | 총 무역      |       |
|-------------------|-----------|---------|-----------|-------|
| 1990              | 65,015    | 69,843  | 134,859   |       |
| 1995              | 125,057   | 135,118 | 260,176   |       |
| 2000              | 172,267   | 160,481 | 332,748   |       |
| 2005              | 284,418   | 261,238 | 545,657   |       |
| 2008              | 422,007   | 435,274 | 857,282   |       |
| 2011              | 555,214   | 524,413 | 1,079,627 |       |
| 연평균<br>성장률<br>(%) | 1990~1995 | 14.0%   | 14.1%     | 14.0% |
|                   | 1995~2000 | 6.6%    | 3.5%      | 5.0%  |
|                   | 2000~2005 | 10.5%   | 10.2%     | 10.4% |
|                   | 2005~2008 | 14.1%   | 18.6%     | 16.3% |
|                   | 1990~2000 | 10.2%   | 8.7%      | 9.5%  |
|                   | 2000~2008 | 9.4%    | 10.5%     | 9.9%  |
|                   | 1990~2008 | 11.0%   | 10.7%     | 10.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연평균성장률은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방식으로 계산하였음

## (2) 한국의 수출입 국가별 변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주요무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3국과의 수출입 량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수출과 수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의 중국과의 교역량이 2000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수출량 변화를 보면, 1995년 이전까지 미국, 일본과 함께 홍콩이 한국의 주요 3대 수출 국가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서 3위로 부상하였다. 이후 미국,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주요 3대 수출 국가가 되었다.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수출대상 1위국가로 부상하였고, 최근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그 비중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수출액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2011년 기준으로 이들 3국의 수출 차이가 많다. 한국의 대 중국수출은 900억 달러 정도 이고, 한국의 대 미국수출은 500억 달러, 일본수출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다음으로 수입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일본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2대 수입국으로 2000년대 초 까지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 이후 한국의 수입 대상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이 일본과 미국에서 일본과 중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일본까지 추월하여 한국의 수입에서 1위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7년 이후 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1위), 일본(2위), 미국(3위)의 순이다.

### (3)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변화

1990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반도체와 신발이었으나, 1995년에는 반도체, 자동차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으로 바뀌었고, 이후 2000년에는 반도체, 컴퓨터와 자동차를 주요 수출하였다. 2005년에는 반도체,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를 주로 수출하였고, 2011년에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를 주로 수출하였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반도체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한국의 수출 품목 순위를 보면 2005년에 비해 반도체(5위)와 자동차(4위)의 순위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석유제품과 반도체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변화

| 순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08년        | 2011년        |
|----|--------------|--------------|--------------|--------------|--------------|--------------|
| 1  | 의류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 2  | 반도체          | 자동차          | 컴퓨터          | 자동차          | 석유제품         | 석유제품         |
| 3  | 신발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 4  | 영상기기         | 인조섬유직물       | 석유제품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자동차          | 자동차          |
| 5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영상기기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 석유제품         |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 6  | 컴퓨터          | 전자응용기기       | 무선통신기기       | 컴퓨터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무선통신기기       |
| 7  | 음향기기         | 컴퓨터          | 합성수지         | 합성수지         | 철 강판         | 자동차부품        |
| 8  | 철 강판         | 의류           | 철 강판         | 철 강판         | 합성수지         | 철 강판         |
| 9  | 인조섬유직물       | 철 강판         | 의류           |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        | 합성수지         |
| 10 | 자동차          | 합성수지         | 영상기기         | 영상기기         | 컴퓨터          | 컴퓨터          |

주: MIT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수입 1위 품목은 원유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석유제품, 반도체, 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00년부터 천연가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철강판의 수입이 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은 원유, 반도체와 천연가스가 각각 수입 1위, 2위, 3위를 차지고 있으며, 원자재의 하나인 석탄의 수입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금철 선철 및 고철, 정밀화학원료 등 각종 원자재의 수입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8>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변화

| 순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08년      | 2011년     |
|----|-----------|----------|-----------|------------|------------|-----------|
| 1  | 원유        | 원유       | 원유        | 원유         | 원유         | 원유        |
| 2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반도체       |
| 3  | 석유제품      | 기타기계류    | 컴퓨터       | 천연가스       | 천연가스       | 천연가스      |
| 4  | 섬유 및 화학기계 | 석유제품     | 석유제품      | 컴퓨터        | 석유제품       | 자동차       |
| 5  | 가죽        | 계측제어분 석기 | 천연가스      | 석유제품       | 철 강판       | 석탄        |
| 6  | 컴퓨터       | 컴퓨터      | 반도체제조 용장비 | 철 강판       | 석탄         | 철 강판      |
| 7  | 철 강판      | 컴퓨터      | 금은 및 백 금  | 반도체제조 용장비  | 컴퓨터        | 철광        |
| 8  | 항공기 및 부품  | 원동기 및 펌프 | 유선통신기 기   | 석탄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컴퓨터       |
| 9  | 목재류       | 철 강판     | 철 강판      | 전자응용기 기    | 정밀화학원 료    | 반도체제조 용장비 |
| 10 | 계측제어분 석기  | 금은 및 백 금 | 정밀화학원 료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도제품        | 정밀화학원 료   |

주: MIT 3단위 기준

## 2. 중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입구조

### 1)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 가)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

2003년 이후 9년간 지소되었던 중국의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은 2011년 한자리 수로 하락하였다. 2011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은 6조 9,884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9.0% 성장하였다. 물가상승률은 2011년 5.9%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그 중 식품가격 상승폭이 14.3%(전년 13.6%)로 높고 이어 고정자산 투자가격 8.9%, 공산품 출고가격 6.9% 올랐다.

<표 2-9>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단위: 조 위엔,%)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GDP         | 12   | 13   | 15   | 18   | 21   | 24   | 30   | 34   | 40   | 47   |
| 전년대비<br>증가율 | 9.1  | 10.0 | 10.1 | 10.4 | 11.6 | 11.9 | 9.0  | 11.5 | 10.1 | 11.2 |

자료: 중국통계국(<http://www.stats.gov.cn>)

#### 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중국의 산업구조는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첫 단계는 195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며, 중국은 이 단계에서 반식만지경제의 특징을 신속히 변화시키고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2단계는 1979년부터 90년대 초까지로 이 기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산업구조 개선을 실시하여 공업화의 중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3단계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기로 제기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로 중국은 이 단계에 공업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정보화를 완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50년 이후 중국은 산업구조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1차산업 비중은 1950년 45.4%에서 2005년에 12.5%로 하락한 반면, 제조업(2차산업) 비중은 1950년 34.4%에서 2005년 47.5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업(3차산업)의 비중도 1950년 20.2%에서 2005년 40%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10> 중국 산업별 총생산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산업구분 | 195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
| 1차산업 | 45.4% | 20%   | 15.1% | 12.5% |
| 2차산업 | 34.4% | 47.2% | 45.9% | 47.5% |
| 3차산업 | 20.2% | 32.8% | 39%   | 40%   |

자료: 중국통계국(<http://www.stats.gov.cn>)

중국의 산업구조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해온 섬유, 화학, 철강 등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정보통신을 비롯한 자본-기술 집약 산업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중국 산업구조를 보면 IT/정보통신(휴대폰, PC, 반도체)과 전기기계(가전제품, 산업용기계), 교통운송설비(자동차, 조거)등 자본-기술집약 산업이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직업(섬유, 의류)과 화학제조업(합성수지, 고무), 비금속제조업(유리, 석면) 등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산업들은 시장축소와 경쟁력 상실로 답보상태가 지속되면서 성장주도 산업으로서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1996년 이후 연평균 20.5%의 고속성장을 달성해 왔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6년 3.7%에서 2001년 7.2%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이동통신시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 2) 중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가. 중국의 수출입구조 현황

2011년 중국은 1조 8,966억 달러를 수출하고 1조 6,919억 달러를 수입하여 총 무역액은 3조 5,8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국가별 수출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으로 중국 총 수출액이 17%에 달하는 3,243억 달러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2위는 홍콩이고, 3위는 일본이며, 한국이 4위로 중국의 대한국 총 수출액은 829억 달러(5.2%)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수입 순위를 보면 1위가 일본으로 중국의 총수입에서 11%(1,944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2위는 한국으로 총수입의 10%를 차지하였다. 총 무역에 있어서는 1위는 미국으로, 중국 총 무역액의 13.0%를 차지하였다. 2위는 일본으로 중국의 총 무역의 10.4%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3위로 중국의 총 무역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중국의 주요 수출입국 비중(2011년 기준)

(단위: 백 만불)

| 수출국 비중 |    |           |     | 수입국 비중 |    |         |     | 총 무역 비중 |    |       |
|--------|----|-----------|-----|--------|----|---------|-----|---------|----|-------|
| 순위     | 국가 | 금액        | 비중  | 순위     | 국가 | 금액      | 비중  | 순위      | 국가 | 비중    |
| 1      | 미국 | 324,300   | 17% | 1      | 일본 | 194,410 | 11% | 1       | 미국 | 13.0% |
| 2      | 홍콩 | 267,516   | 14% | 2      | 한국 | 161,673 | 10% | 2       | 일본 | 10.4% |
| 3      | 일본 | 147,290   | 8%  | 3      | 대만 | 124,895 | 8%  | 3       | 한국 | 7.3%  |
| 4      | 한국 | 82,925    | 4%  | 4      | 미국 | 118,121 | 6%  | 4       | 독일 | 4.5%  |
| 5      | 그외 | 1,074,539 | 57% | 5      | 그외 | 118,121 | 65% | 5       | 그외 | 64.8%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 품목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입 1위 품목은 모두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차지하고 있다. 원자료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은 수출에서 2위, 수입에 있어서는 3위를 차지하여 수출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품에는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와 부품(3위)과 의류와 그 부속(5위),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그 부분품과 부속품(10위) 등 경공업제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품목은 모두 중화학공업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2> 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2011년 기준)

| 순위 | 수출                               | 수입                               |
|----|----------------------------------|----------------------------------|
| 1  | 전기기와 그 부분품                       | 전기기와 그 부분품                       |
| 2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
| 3  |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부품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4  | 철강                               | 광 슬래                             |
| 5  | 의류와 그 부속                         | 광학기, 사진용 기, 영화용 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 |
| 6  | 철강의 제품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 7  | 광학기, 사진용 기, 영화용 기, 측정기, 검사기, 정밀기 | 유기화합품                            |
| 8  |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9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그 부분품과 부속품      | 동과 그 제품                          |
| 10 |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그 부분품과 부속품          | 철강                               |

주: HS 2 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나) 중국의 수출입구조 변화

### (1) 중국의 수출입 국가별 변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과 한국이 4대 주요 수출국이다. 미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홍콩, 일본과 한국 4국으로 수출액 차이가 많지 않았으나 2004년부터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2006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대만과 한국의 순이다. 2002년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수입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06년 이후 대만을 추월하여 수입 2위국으로 부상하였다.

## (2)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구조 변화

2000년 중국의 수출은 2,492억 달러였고 수입은 2,250억 달러였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무역량은 크게 증가하여 2000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수출과 수입은 2,666억 달러와 2,435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7.0%, 8.2%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4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5,936억 달러와 5,608억 달러로 2003년 대비 각각 35.4%, 35.8%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수출은 1조 8,86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7.3% 성장하였고, 수입은 1조 6,919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8.3% 성장하였다.

기간별 수출입의 증가율을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24.2%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25.6%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은 연평균 24.6%로 전반기(2000~2004년)와 유사하나, 수입은 연평균 19.2% 증가하여 전반기에 비해 증가율이 6%가량 감소하였다. 2000년 대비 2011년 수출은 7.5배, 수입은 7.5배, 총 무역은 7.5배 증가하였다.

<표 2-13> 중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단위: 백 만불, %)

| 연도                | 수출        | 수입        | 총무역액      | 무역수지    |  |
|-------------------|-----------|-----------|-----------|---------|--|
| 2000              | 249,239   | 225,095   | 474,334   | 24,144  |  |
| 2001              | 266,661   | 243,567   | 510,228   | 23,094  |  |
| 2003              | 438,472   | 413,095   | 851,568   | 25,377  |  |
| 2004              | 593,647   | 560,811   | 1,154,458 | 32,836  |  |
| 2006              | 959,323   | 791,793   | 1,751,117 | 167,530 |  |
| 2008              | 1,428,869 | 1,131,468 | 2,560,337 | 297,401 |  |
| 2010              | 1,576,817 | 1,375,451 | 2,952,268 | 201,367 |  |
| 2011              | 1,896,570 | 1,691,889 | 3,588,459 | 204,681 |  |
| 연평균<br>성장률<br>(%) | 2000~2004 | 24.2%     | 25.6%     | 24.9%   |  |
|                   | 2004~2008 | 24.6%     | 19.2%     | 22.0%   |  |
|                   | 2000~2008 | 24.4%     | 22.4%     | 23.5%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한중간 무역구조 변화

#### 1) 한중간 수출입구조 변화

한국의 대 중국 연도별 수출입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 총 수출액은 718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대 중국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전체의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 수입액은 815억 달러였는데 이중 중국에서의 수입은 34억 달러로 전체의 4.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와 2001년 중국의 WTO가입 등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기준 대 중국 수출은 총수출의 12.1%(181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총수입의 9.4%(133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대 중국 수출액은 1,34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24.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수입액은 5,244

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1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4> 한국의 대중국 연도별 수출입 변화

(단위: 백 만불, %)

| 연도   | 수출      |         |      | 수입      |        |      | 무역수지    |        |
|------|---------|---------|------|---------|--------|------|---------|--------|
|      | 전체      | 대중      | 비중   | 전체      | 대중     | 비중   | 전체      | 대중     |
| 1991 | 71,870  | 1,003   | 1.4  | 81,525  | 3,441  | 4.2  | -9,665  | -2,438 |
| 1992 | 76,632  | 2,654   | 3.5  | 81,775  | 3,725  | 4.6  | -5,144  | -1,071 |
| 1995 | 125,058 | 9,144   | 7.3  | 135,119 | 7,401  | 5.5  | -10,061 | 1,743  |
| 2001 | 150,439 | 18,190  | 12.1 | 141,098 | 13,303 | 9.4  | 9,341   | 4,888  |
| 2003 | 193,817 | 35,110  | 18.1 | 178,827 | 21,909 | 12.3 | 14,991  | 13,201 |
| 2005 | 284,419 | 61,915  | 21.7 | 261,238 | 38,648 | 14.8 | 23,181  | 23,267 |
| 2007 | 371,489 | 81,985  | 22.0 | 365,846 | 63,028 | 17.7 | 14,643  | 18,957 |
| 2008 | 422,007 | 91,389  | 21.7 | 435,275 | 76,930 | 17.7 | -13,268 | 14,459 |
| 2010 | 466,384 | 116,838 | 24.8 | 425,212 | 71,574 | 16.8 | 41,172  | 45,264 |
| 2011 | 555,214 | 134,185 | 24.1 | 524,413 | 86,432 | 16.5 | 30,801  | 47,75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음으로 중국의 대 한국 연도별 수출입 변화를 보면 1998년 1,805억 달러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 한국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3.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50억 달러로 총수입의 10.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 한국 수출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중국의 대한무역은 632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75%가량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2003년 대비 75%가량 증가한 1,12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대한 수출액은 829억 달러, 수입은 1,617억 달러로 총 무역액은 2,4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는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도 증가하고 있다.

<표 2-15> 중국의 대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단위: 백 만불, %)

| 연도   | 수출        |        |     | 수입        |         |      | 무역수지    |         |
|------|-----------|--------|-----|-----------|---------|------|---------|---------|
|      | 전체        | 한국     | 비중  | 전체        | 한국      | 비중   | 전체      | 한국      |
| 1998 | 180,516   | 62,32  | 3.4 | 140,385   | 15,021  | 10.6 | 40,131  | -8,798  |
| 1999 | 195,177   | 7,817  | 4.0 | 165,779   | 17,232  | 10.4 | 29,398  | -9,415  |
| 2001 | 266,261   | 12,544 | 4.7 | 243,567   | 23,396  | 9.6  | 23,094  | -10,852 |
| 2003 | 438,473   | 20,105 | 4.6 | 413,096   | 43,161  | 10.4 | 25,377  | -23,056 |
| 2005 | 762,327   | 35,117 | 4.6 | 660,222   | 76,874  | 11.6 | 102,105 | -41,757 |
| 2007 | 1,218,155 | 56,129 | 4.6 | 956,261   | 104,045 | 10.9 | 261,894 | -47,916 |
| 2008 | 1,428,869 | 73,905 | 5.1 | 1,131,569 | 112,154 | 9.9  | 297,400 | -38,249 |
| 2009 | 1,200,362 | 53,630 | 4.5 | 1,000,578 | 102,125 | 10.2 | 199,784 | -48,495 |
| 2010 | 1,576,817 | 68,811 | 4.3 | 1,375,451 | 138,023 | 10.0 | 201,367 | -69,212 |
| 2011 | 1,896,570 | 82,925 | 4.4 | 1,691,889 | 161,673 | 9.6  | 204,681 | -78,74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한중간 품목별 변화

1992년 한국의 대 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철강판’이었다. 1995년과 2000년은 ‘합성수지’와 ‘석유제품’등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 이후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무선통신기기’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등의 수출비중이 높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IT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으로 ‘반도체’, ‘석유제품’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2-16> 한국의 10대 대중국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 1992년      |     | 2000년 |      | 2009년 |       | 2011년        |       |
|----|------------|-----|-------|------|-------|-------|--------------|-------|
| 1  | 철강판        | 4.2 | 석유제품  | 16.8 | LCD   | 131.7 | LCD          | 202.9 |
| 2  | 합성수지       | 3.0 | 합성수지  | 15.8 | 반도체   | 91.9  | 반도체          | 157.7 |
| 3  | 철근         | 2.3 | 전자관   | 12.3 | 휴대폰   | 62.1  | 석유제품         | 109.9 |
| 4  | 가죽         | 1.4 | 철강판   | 11.0 | 합성수지  | 57.3  | 합성수지         | 73.8  |
| 5  | 인조섬유       | 1.3 | 가죽    | 7.6  | 석유제품  | 46.6  | 석유원료         | 45.4  |
| 6  | 직물         | 1.0 | 컴퓨터   | 7.4  | 합섬원료  | 30.0  | 자동차부품        | 44.0  |
| 7  | 종이         | 0.9 | 기타직물  | 6.0  | 철강판   | 30.0  | 휴대폰          | 42.8  |
| 8  | 섬유기계       | 0.8 | 반도체   | 5.8  | 자동차부품 | 26.6  | 석유화학<br>중간원료 | 38.1  |
| 9  | 석유제품       | 0.7 | 합성원료  | 5.7  | 컴퓨터   | 24.8  | 철강판          | 36.7  |
| 10 | 석유화학제<br>품 | 0.7 | 중간원료  | 5.1  | 석유원료  | 21.6  | 기초유분         | 32.4  |

주: MIT 3 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목은 식물성물질과 원유 등의 수입비중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철강판과 반도체 등이 수입비중이 높다. 2000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1위 품목은 의류였으며, 2005년까지 의류의 수입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목에서는 컴퓨터가 모두 1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그 비중이 약간 낮아졌다.

<표 2-17> 한국의 10대 대중국 수입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 1992년 |     | 2000년       |     | 2009년 |      | 2011년      |      |
|----|-------|-----|-------------|-----|-------|------|------------|------|
| 1  | 식물성물질 | 6.6 | 의류          | 8.7 | 반도체   | 46.3 | 반도체        | 66.4 |
| 2  | 원유    | 2.2 | 컴퓨터         | 8.2 | 컴퓨터   | 43.1 | 컴퓨터        | 59.4 |
| 3  | 섬유직물  | 2.2 | 석탄          | 7.2 | LCD   | 34.5 | 철강판        | 55.4 |
| 4  | 시멘트   | 2.1 | 식물성물질       | 6.9 | 철강판   | 30.2 | 무선통신<br>기기 | 46.5 |
| 5  | 석탄    | 2.1 | 반도체         | 6.3 | 의류    | 22.2 | LCD        | 42.2 |
| 6  | 견직물   | 1.8 | 화학원료        | 3.9 | 휴대폰   | 17.1 | 의류         | 34.5 |
| 7  | 곡실류   | 1.4 | 선철 및 고<br>철 | 3.8 | 화학원료  | 14.6 | 정밀화학<br>원료 | 30.8 |
| 8  | 화학원료  | 1.1 | 음향기기        | 3.5 | 철구조물  | 14.2 | 정전기기       | 27.7 |
| 9  | 면직물   | 1.0 | 석유제품        | 3.2 | 기구부품  | 13.1 | 전선         | 19.3 |
| 10 | 기타농산물 | 1.0 | 어류          | 3.1 | 석탄    | 11.4 | 기구부품       | 17.7 |

주: MIT 3 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변화

#### (1) 수출 구조

2001년 한국 대중 1차산품 수출 비중은 0.4%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한국 대중 1차산품 수출 비중은 0.8%를 차지 하였다. 2011년 한국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83.4%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부터 그 비중은 하락하였다. 2007년 한국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76%로 2001년 대비 6.6%p 하락하였으나 중간재 중에서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상승하였다. 2007년 대중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35.6%로 2001년 대비 18.7%p 상승하였다.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는 반제품보다 부품·부분품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 이후 대중 부품·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진출 한국기

업의 주력 생산품인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전자통신제품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재를 보면 2001년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 비중은 16.2%를 차지하였고 2007년 수출 비중은 22.3%로 2001년 대비 6.1%p 상승하였다. 2007년 자본재의 수출 비중은 19.4%로 2001년 대비 8.3%p 상승하였고, 소비재 수출 비중은 2.9%로 2001년 대비 2.2%p 하락하였다. 최종재 수출의 경우 소비재 수출이 낮으며, 자본재 비중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금액은 증대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자본재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증가율 둔화, 중국의 FDI유입 둔화에 따른 대한 투자용 설비 감소 때문이다. 최종재 수출 중 소비재의 수출비중은 높지 않은 가운데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자본재 비중이 2006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6년 자본재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2.7%p 상승한 16.7%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경기호조에 따른 중국 내 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재 수요증가에 따라 2007년 중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6년 24%, 2007년 상반기에는 25.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투자 증가율은 26.7%에 달하였다<sup>1)</sup>.

---

<sup>1)</sup> 이승신, 「한국무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2007, 8, p. 7

<표 2-18> 한국 대 중국 수출의 가공단계별 구조

(단위: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품목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차산품   | 0.4   | 0.5   | 0.5   | 0.6   | 0.6   | 0.7   | 0.8   |
| 중간재    | 83.4  | 76.1  | 76.5  | 79.7  | 82.0  | 79.3  | 76.8  |
| 반제품    | 64.0  | 52.0  | 46.2  | 43.9  | 42.0  | 43.3  | 41.3  |
| 부품·부분품 | 19.5  | 24.1  | 30.3  | 35.8  | 40.0  | 35.9  | 35.6  |
| 최종재    | 16.2  | 23.4  | 23.0  | 19.7  | 17.3  | 20.0  | 22.3  |
| 자본재    | 11.1  | 18.5  | 18.6  | 16.2  | 14.0  | 16.7  | 19.4  |
| 소비재    | 5.1   | 4.9   | 4.4   | 3.5   | 3.3   | 3.3   | 2.9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수입구조

2001년 한국의 대중 1차산품 수입 비중은 12.9%를 차지하였다. 2003년부터 1차산품의 수입 비중은 하락하였고, 2007년 수입 비중은 8.6%로 2001년 대비 4.3%p 하락하였다. 1차산품의 대 중국 수입 비중의 하락은 2005년부터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 및 저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제한 정책시행에 기인하였다. 특히, 합금철(MTI 6181), 석탄(MTI 132)의 대 중국 수입은 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간재를 보면 2001년 한국 대중 중간재 수입 비중은 48.9%를 차지하였다. 2004년부터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중간재 수입비중은 56.4%로 2001년 대비 7.5%p 상승하였다. 최종재의 경우 2001년 한국 대중 최종재 수입 비중은 38.2%를 차지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4년부터 수입 비중은 하락하였다. 2007년 한국 대중 최종재 수입 비중은 35.0%로 2001년 대비 3.2%p 하락하였다.

2007년 한중 가공단계별 수입구조의 특징은 중간재의 비중은 상승, 소비재와 일

차산품의 비중은 하락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비중은 56.4%로 전년대비 1.7%p 상승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35.0%로 전년대비 0.8% 하락하였다. 대중 수입상품 구성을 2007년 기준하여 보면 일차산품 8.6%, 부품·부분품 19.7%, 자본재 18.4%, 소비재 16.5%를 차지하였다.

대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를 보면 2006년부터 한국의 대 중국 수입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 중간재, 최종재 비중 상승, 1차산품 비중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대 중국 수입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6년 한국의 대 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57.4%, 최종재 비중은 36.2%로 전년대비 각각 2.7%p, 0.4%p, 상승하였다. 반면, 1차산품의 비중은 6.3%로 전년대비 3.1%p 하락하였다. 2006년 대 중국 수입상품은 1차사품 6.3%, 반제품 36.5%, 부품·부분품 20.9%, 자본재 18.7%, 소비재가 17.5%를 차지하였다.

<표 2-19> 한국 대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

(단위: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 품목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1차산품   | 12.9  | 12.6  | 12.6  | 9.1   | 9.4   | 6.3   | 8.6   |
| 중간재    | 48.9  | 48.2  | 48.0  | 52.8  | 54.7  | 57.4  | 56.4  |
| 반제품    | 32.0  | 31.4  | 29.9  | 34.2  | 35.3  | 36.5  | 36.7  |
| 부품·부분품 | 16.9  | 16.8  | 18.1  | 18.6  | 19.4  | 20.9  | 19.7  |
| 최종재    | 38.2  | 39.1  | 39.4  | 38.1  | 35.8  | 36.2  | 35.0  |
| 자본재    | 14.5  | 14.9  | 16.9  | 18.4  | 18.5  | 18.7  | 18.4  |
| 소비재    | 23.6  | 24.3  | 22.5  | 19.8  | 17.3  | 17.5  | 16.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3) 무역수지 구조

한중 무역 수지 동향을 보면 2001년 한국 대중 무역수지는 일차산품 16억 달러 흑자, 중간재 86억 달러 흑자(반제품 73 달러 흑자, 부품·부분품 12억 달러 흑자),

최종재 21억 달러 적자(자본재 0.9억 달러 흑자, 소비재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6년 중간재 대중 흑자와 일차산품 대중 적자는 감소하였고, 소비재의 적자는 확대되었다. 2006년 가공단계별 한국의 대 중국 무역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품·부분품의 흑자감소(25억 달러)와 소비재의 적자 확대(16억 달러)가 한국전체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부분품 대중 흑자는 전년 대비 14.4%p 감소해 부품·부분품 수지 감소가 중간재 흑자 감소를 주도한 반면, 반제품 수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년대비 0.1%p 증가)소비재의 대중적자는 전년대비 34.6%p 증가한 반면, 일차산품 대중 적자 21.3%p 감소하였다.

2007년 대중 무역수지는 일차산품 37억 달러 적자, 중간재 356억 적자(반제품 153달러 흑자, 부품·부분품 202억 달러 흑자), 최종재 42억 달러 적자(자본재 10억 달러 흑자, 소비재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 가공단계별 한중 무역수지 구조는 중간재는 흑자, 일차산품 및 소비재는 적자가 심화되었다. 2007년 부품·부분품 대중 흑자는 전년대비 37.4%p 증가하였고, 자본재 흑자는 60%p 감소, 그리고 일차산품의 적자는 48%p 증가했다.

<표 2-20> 한국 대중국 가공단계별 무역지수

(단위: 백만 달러)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품목    | 4,888  | 6,354  | 13,201 | 20,178 | 23,267 | 20,903 | 27,635 |
| 1차산품   | 1,647  | -2,078 | -2,565 | -2,396 | -3,250 | -2,557 | -3,725 |
| 중간재    | 8,666  | 9,680  | 16,346 | 24,055 | 29,635 | 27,170 | 35,610 |
| 반제품    | 7,375  | 6,888  | 9,656  | 11,750 | 12,365 | 12,381 | 15,320 |
| 부품·부분품 | 1,291  | 2,792  | 6,690  | 12,305 | 17,270 | 14,789 | 20,290 |
| 최종재    | -2,124 | -1,245 | -576   | -1,472 | -3,108 | -3,699 | -4,250 |
| 자본재    | 91     | 1,810  | 2,816  | 2,627  | 1,514  | 2,520  | 1,015  |
| 소비재    | -2,215 | -3,055 | -3,391 | -4,100 | -4,622 | -6,219 | -5,26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Ⅲ. 한중 비교우위 분석

#### 1. 국제경쟁력의 개념 및 이론

##### 1) 국제경쟁력의 개념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포터는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10개국을 선정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OECD(1992)<sup>2)</sup>는 국제경쟁력을 “어떤 국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 내지 증대시키면서 국제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과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국가간 상품 및 용역의 생산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정도가 바로 국제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은 국가경제차원에서 국가간의 우열이 비교되는 국가경쟁력과 특정산업차원에서 산업간의 우열이 비교되는 산업경쟁력, 그리고 특정산업내에서 기업들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기업경쟁력의 세 가지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한편 Hart(1992)<sup>3)</sup>는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무역수지,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 생산성 성장률, 실질임금 증가율, 수입의 가격탄력성

<sup>2)</sup> OECD, “The Annual Report of OECD”, 1992, p.12

<sup>3)</sup> Hart, Jeffrey A, Rival Capitalis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19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수입의 가격탄력성은 그 값이 감소할 때 국제경쟁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그 값이 증가할 때 국제경쟁력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생산성 증가율은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 총 생산량에서 특정 산업의 생산량의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 산업에서 나타나는 불경기의 빈도를 들고 있다. 어떤 산업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위의 지표들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산업의 불경기 빈도는 낮은 반면 다른 지표는 증가할 때 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증대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위의 두 가지 국제경쟁력의 본질적 요소가 되며, 새로운 기술의 창조와 보급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는 국가 및 사회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창조와 보급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기술로 생산비를 낮추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된다.

결국 국제경쟁력이란 어떤 국가의 특정한 제품이 다른 국가의 그것과 국제시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한다. 특히,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이란 “특정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제 요건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 특정 상품의 경쟁력은 타국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으로 구분되며, 해외시장에서 보인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수출경쟁력이라고 하고, 국내시장에서 보인 자국상품의 수입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수입경쟁력 또는 수입저항력이라 한다. 이 중에서 자국상품의 수입경쟁력보다는 수출경쟁력이 더 의미를 갖는다.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국상품의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쟁력을 가격경쟁력이라 하고

그 외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쟁력을 비가격경쟁력이라 한다. 즉 가격경쟁력은 특정국가의 특정상품가격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싸냐 비싸냐를 말하는 것으로 환율, 임금, 요소생산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비가격경쟁력이란 지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경쟁 상품과 비교하여 품질수준, 내구성, 디자인, 포장, 마케팅 능력, 상품의 이미지, 제도상의 우위요인, 소비자 만족도 등 가격 이외의 제 요인을 말한다.

## 2) 비교우위의 측정방법

### (1)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Balassa(1965)가 고안한 비교우위지수이나 동시에 각국의 경쟁력 비교에 활용되고 있다<sup>4)</sup>. RCA 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과 같은 무역변수들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에 비교하기 위해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로 정의되며, 교역국가들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구조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J품목이 자국의 여타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경쟁력)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CA = \frac{X_{ij} / X_{wj}}{X_i / X_w}$$

<sup>4)</sup> Balassa, B,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in Balassa, B, ed, 『Changing Patterns in Foreign Trade and Payment』, New York: Hooper, 1965, p. 28-30

RCA<sub>ij</sub>: i국가 j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X<sub>ij</sub>: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sub>wj</sub>: 전세계 j품목에 대한 수출액  
 X<sub>i</sub>: i국가 총 수출액, X<sub>w</sub>: 전세계 총 수출액

(2)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세계가 아닌 대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MCA = \frac{X_{ij} / X_{wj}}{X_i / X_w}$$

여기서 X<sub>ij</sub>는 i국가 k산업의 j국가에 대한 수출액을, X<sub>wj</sub>는 i국가의 j국가에 대한 총 수출액을, X<sub>i</sub>는 j국가 k산업에 대한 대 세계 수입액을, X<sub>w</sub>는 j국가의 총 수입액을 의미한다<sup>5)</sup>.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시장비교우위지수(MCA)는 비슷한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RCA지수보다는 MCA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3)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란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순 수출비율 지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ex)로 부르기도 한

<sup>5)</sup>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p.88-89, 2007.

다.

이는 해당 상품의 순 수출액이 해당 상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산된다. 이 지수가 -100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 중립적인 상태, +100인 경우에는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무역특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SI_{ij} = (X_{ij} - M_j) / (X_{ij} + M_j)$$

$TSI_{ij}$ : i국의 j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_{ij}$ : i국의 j품목에 대한 수출액

$M_j$ : i국의 j품목에 대한 수입액

무역특화지수가 국제경쟁력지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무역특화지수가 0~100인 경우는 해당 제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100에서 0까지는 이 제품이 무역적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다 세분화 하여  $50 \leq TSI \leq 100$ 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매우 강하고,  $0 < TSI < 50$ 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강하며,  $TSI = 0$ 이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50 < TSI < 0$ 이면 비교열위인 것으로,  $-100 \leq TSI \leq -50$ 이면 매우 비교열위인 상태로 평가한다.

무역특화지수는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 질 때 즉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가 100%이면 0이 된다. 한편 동일 산업내에서 수출은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100%로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 -100%가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산업이 산업내무역이 증진될 경우 그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00% 혹은 +100%에서 0%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이 촉진되어 양국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 특화도를 시장점유율과 동시에 고려한다면 산업내무역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면서 무역특화도가 하락하면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과 무역특화도가 동시에 하락하면 산업내무역이 경쟁력 상실로 수출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어느 국가의 특정 품목의 전체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전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해당 품목의 수출입액을 가지고는 그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관찰할 수 있다.

#### (4)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무역특화도는 한 국가의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를 나타내주지만,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명확히 나타내주지는 못한다. Grubel & Lidyd(1975)는 이러한 무역특화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 어떤 상품에 대해 발생하는 산업내무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품 i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를 개발하였다.

$$IIT = 1 - \frac{|X_i - M_i|}{X_i + M_i}$$

IIT: 산업내무역지수

$X_i$ : i산업의 수출,  $M_i$ : i산업의 수입

만약 i상품에 대한 수출입이 동일하다면,  $|X_i - M_i|=0$ 이 되어  $IIT=1$ 이 성립하여 모든 무역은 산업내무역으로 발생하며, 수출액이나 수입액이 0이 되면  $IIT=0$ 이 성립하므로 모든 무역은 산업간무역이 된다.

<sup>6)</sup> 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p. 8-9, 2007.

(5) 무역의존도(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지수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의존도는 국민총생산(또는 국민소득)에 대한수출액의 비율을, 수입의존도는 국민총생산(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나 경제발전의 정도 등의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무역이 외국의 경기변동 등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국민경제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구조변동기에는 변화가 심하지만 보통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낸다.

대외의존도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상 불안정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경제에 의해 국내 경제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N_{12} = \frac{X_{i12} + X_{i21}}{GNPr}$$

$N_{12}$ : 국가간 수출의 상호의존도

$X_{i12}$ : Xi 제품의 1국에서 2국으로의 수출액

$GNPr$ : r(r=1,2)국의 총국민소득

## 2. 한중 무역 비교우위 분석

### 1) MCA 분석결과

시장비교우위(MCA)지수를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경쟁력지수를 측정하였다. 중국의 무역통계는 분류기준이 HS단위로 구분되며, SITC 산업분류는 얻을 수 없다. 이

에 HS 2단위별로 계산하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21개 산업에 대해 단순평균의 방식으로 MCA지수를 계산하였다(21개 산업분류 및 HS 2단위별 산업분류는 <부록 1>참조).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최근 어떤 제품과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한다. 시장비교우위지수(MCA)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산업이 자국의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

<표3-1>을 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이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은 4가지 품목으로 ① 플라스틱 및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산업코드: 7), ②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산업코드: 11), ③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그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희, 인모제품(산업코드: 12), ④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과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등 잡품(산업코드: 20)이다.

한국이 초기에 비교우위를 가졌으나 이후 상실한 품목은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품, 동물거트의 제품(산업코드: 8)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비교우위를 가졌으나 이후 비교열위상태로 바뀌었다.

반대로 한국이 초기에는 비교열위에 있었으나 비교우위로 바뀐 품목은 세 개 품목으로 먼저①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산업코드: 16)과 ②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그 부분품(산업코드: 18)의 두 품목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교열위 상태였으나 이후 비교우위 품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③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산업코드: 17)의 경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2011년 비교우위 품목으로 바뀌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①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산업코드: 16), ②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산업코드: 17), ③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세계, 약기, 그 부분품(산업코드: 18), ④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산업코드: 21)등 4개 품목이다.

<표 3-1> 한국의 대 중국 MCA 지수

| 산업 코드 | 1998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8 | 2010  | 2011 |
|-------|------|------|------|------|------|------|------|------|-------|------|
| 1     | 0.48 | 0.29 | 0.24 | 0.18 | 0.17 | 0.17 | 0.14 | 0.14 | 0.17  | 0.19 |
| 2     | 0.10 | 0.33 | 0.42 | 0.62 | 0.49 | 0.32 | 0.43 | 0.34 | 0.48  | 0.47 |
| 3     | 0.03 | 0.04 | 0.05 | 0.03 | 0.02 | 0.01 | 0.01 | 0.02 | 0.01  | 0.01 |
| 4     | 0.71 | 0.60 | 0.61 | 0.61 | 0.68 | 0.73 | 0.76 | 0.80 | 0.78  | 0.83 |
| 5     | 0.76 | 0.43 | 0.52 | 0.31 | 0.30 | 0.27 | 0.23 | 0.27 | 0.25  | 0.28 |
| 6     | 0.92 | 0.90 | 0.97 | 0.88 | 0.70 | 0.80 | 0.71 | 0.81 | 0.81  | 0.82 |
| 7     | 1.30 | 1.19 | 1.24 | 1.10 | 1.00 | 1.02 | 1.07 | 1.05 | 1.09  | 1.16 |
| 8     | 2.79 | 2.53 | 2.02 | 1.75 | 1.48 | 1.14 | 0.65 | 0.55 | 0.48  | 0.43 |
| 9     | 0.11 | 0.16 | 0.16 | 0.11 | 0.08 | 0.50 | 0.20 | 0.13 | 0.15  | 0.12 |
| 10    | 0.62 | 0.51 | 0.60 | 0.49 | 0.45 | 0.45 | 0.36 | 0.34 | 0.37  | 0.42 |
| 11    | 0.59 | 2.09 | 2.26 | 2.06 | 1.92 | 1.66 | 1.71 | 1.79 | 1.54  | 1.50 |
| 12    | 3.37 | 4.82 | 5.58 | 6.43 | 5.45 | 4.06 | 4.09 | 4.52 | 3.38  | 3.12 |
| 13    | 0.55 | 0.69 | 0.86 | 0.92 | 0.96 | 0.81 | 0.80 | 0.96 | 0.83  | 0.84 |
| 14    | 0.46 | 0.77 | 0.86 | 0.66 | 0.52 | 0.50 | 0.38 | 0.34 | 0.30  | 0.24 |
| 15    | 0.75 | 0.74 | 0.94 | 0.92 | 1.00 | 0.91 | 0.81 | 0.87 | 0.85  | 0.99 |
| 16    | 0.56 | 0.77 | 0.76 | 0.98 | 1.07 | 1.07 | 1.05 | 1.04 | 1.03  | 1.04 |
| 17    | 0.48 | 0.25 | 0.30 | 0.27 | 0.47 | 1.69 | 0.96 | 0.76 | 0.65  | 1.78 |
| 18    | 0.51 | 0.64 | 0.74 | 0.98 | 1.30 | 1.51 | 1.46 | 1.38 | 1.47  | 1.39 |
| 19    | 0.01 | 0.03 | 0    | 0.16 | 0    | 0.25 | 0.30 | 0.18 | 0.03  | 0.14 |
| 20    | 1.84 | 2.43 | 2.29 | 2.03 | 1.67 | 1.68 | 1.72 | 1.98 | 1.42  | 1.14 |
| 21    | 0.01 | 0.04 | 8.29 | 9.46 | 0.14 | 0.60 | 2.07 | 6.17 | 11.07 | 7.72 |

자료: 한국무역협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3-2> HS code 2단위 품목분류

| 코드 | 품목명  |
|----|--|
| 1  |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 2  | 식물성 생산품  |
| 3  | 동식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4  |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담배, 제조한 담뱃대용물                          |
| 5  | 광물성 생산품  |
| 6  |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
| 7  |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
| 8  |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품, 동물거트의 제품       |
| 9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제품. 농. 지조 세공물    |
| 10 | 목재펄프,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및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그 제품    |
| 11 | 방지용 섬유와 그 제품   |
| 12 |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그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13 |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및 그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 14 | 진주. 귀석. 잔귀석. 귀금속. 귀금속입힌 금속. 그 제품. 모조신변장 식용품과 주화            |
| 15 | 비금속과 그 제품  |
| 16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            |
| 17 |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관련품                                       |
| 18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그 부분품 |
| 19 | 무기, 총포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20 | 잡품   |
| 21 |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TSI 분석결과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최근 어떤 제품과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TC 3 단위 산업 분류로 계산하여 SITC 1 단위 수준에서 단순 평균하였다.

동지수는 해상품의 순 수출액이 동제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계산된다. 동지수가 -100인 경우는 완전수입특화, 0인 경우는 비교우위중립적인 상태, +100인 경우에는 완전수출 특화를 나타낸다. 동지수의 값이 0~100인 경우는 동제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100에서 0까지는 이 제품이 무역적자가 되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되지 못한다.

1992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한국이 중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은 화학물 및 관련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 두 개 산업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식품 및 산동물, 동물성 유지 및 왁스,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 기타 제조 제품 등의 네 개 산업이다.

201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음료 및 담배(38.2), 화학물 및 관련제품(4.5), 기계 및 운수장비(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2.7)등 4개 산업이다. 반면 식품 및 산동물(-52.4), 비식용원재료(-18.6),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47.6),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44.1), 재료별 제조제품(-34.5), 기타 및 운수장비(-38.5) 산업은 한국의 비교열위에 있다. 특히 식품 및 산동물의 TSI 값이 -52.4로 가장 낮다. 식품 및 산동물은 중국이 대 한국 수출특화산업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종 수출특화품인 화학물 및 관련제품과 중국의 주종 수출특화품인 1차산품에서 산업간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 산업내 수평적인 분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표 3-3> 한국의 대중국 TSI지수

| 품목                       | 1992  | 1998  | 2000  | 2002  | 2006  | 2011  |
|--------------------------|-------|-------|-------|-------|-------|-------|
| 식품 및 산동<br>물             | -72.1 | -45.6 | -52.9 | -48.6 | -13.4 | -52.4 |
| 음료 및 담배                  | -80.2 | 73.4  | 16.9  | -28.8 | -0.7  | 38.2  |
| 비식용원재료                   | -43.6 | -22.3 | -22.3 | -30.0 | -15.1 | -18.6 |
| 광물성연료,<br>윤활유 및 관<br>련물질 | -56.0 | -25.6 | -7.2  | -10.2 | -26.7 | -47.6 |
| 동식물성유지<br>및 왁스           | -86.4 | -8.4  | 0.7   | -38.3 | -44.4 | -44.1 |
| 화학물 및 관<br>련제품           | 4.9   | 35.8  | 27.5  | 21.6  | -30.0 | 4.5   |
| 재료별<br>제조제품              | -5.5  | 14.4  | -7.4  | -11.2 | -28.7 | -34.5 |
| 기계 및 운수<br>장비            | 19.6  | 41.6  | 30.4  | 23.9  | -36.9 | 5.0   |
| 기타제조제품                   | -48.9 | -10.8 | -26.7 | -31.2 | -20.2 | -38.5 |
| 달리 분류되<br>지 않은 상품        | -62.6 | 37.8  | 18.3  | 11.7  | 35.3  | 2.7   |

자료: 한국무역협회를 이용하여 분석함

### 3) 산업내무역지수 분석결과

Grubel-Llidy(1975)지수 분석에서는 SITC 3 단위 수준에서 계산하여 SITC 1 단위 수준에서 단순 평균하였다. Grubel-Llidy지수는 IIT=1 성립하여 모든 무역은 산업내무역으로 발생하며, 수출액이나 수입액이 0이 되면 IIT=0이 성립하므로, 모든 무역은 산업간무역이 된다.

한국과 중국의 Grubel-Llidy 산업내무역지수<표 3-4>을 보면 한중간 산업내무역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기타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이며, 가장 낮은 산

업은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산업내무역이 높은 산업은 재료별 제조제품, 화학물 및 관련제품 등이 해당된다. 음료 및 담배 산업의 경우 기간 동안 값의 변동폭이 크고, 특히 2006년 값이 너무 커서 산업내무역이 높은 사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산업내무역지수는 대체로 농식품산업분야 보다는 중화학공업분야에서 높은 편으로 한중간의 산업내무역도 일반적인 산업내무역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 비해 2008년 산업내무역지수가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을 제외하고는 기간 동안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산업내무역지수

| 품목                | 1992 | 1998 | 2000 | 2002 | 2006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식품 및 산동물          | 0.07 | 0.19 | 0.16 | 0.15 | 0.73 | 0.26 | 0.17 | 0.36 | 0.45 |
| 음료 및 담배           | 0.20 | 0.26 | 0.40 | 0.51 | 0.93 | 0.12 | 0.78 | 0.80 | 0.52 |
| 비식용원재료            | 0.10 | 0.21 | 0.22 | 0.24 | 0.70 | 0.22 | 0.85 | 0.90 | 0.86 |
|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 0.15 | 0.11 | 0.12 | 0.10 | 0.57 | 0.10 | 0.50 | 0.41 | 0.30 |
|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 0.14 | 0.18 | 0.29 | 0.32 | 0.46 | 0.48 | 0.58 | 0.95 | 0.67 |
| 화학물 및 관련제품        | 0.28 | 0.31 | 0.30 | 0.33 | 0.66 | 0.41 | 0.40 | 0.44 | 0.46 |
| 재료별 제조제품          | 0.27 | 0.40 | 0.44 | 0.46 | 0.65 | 0.41 | 0.88 | 0.81 | 0.73 |
| 기계 및 운수 장비        | 0.37 | 0.36 | 0.47 | 0.42 | 0.63 | 0.57 | 0.80 | 0.77 | 0.80 |
| 기타제조제품            | 0.35 | 0.51 | 0.46 | 0.50 | 0.77 | 0.48 | 0.63 | 0.62 | 0.6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 0.04 | 0.14 | 0.07 | 0.22 | 0.31 | 0.31 | 0.08 | 0.07 | 0.33 |

자료: 한국무역협회를 이용하여 분석함

#### 4) 한중 상호의존도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한국이 무역을 통하여 양국간 어느 정도만큼 상호의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간 수출의 상호의존도계수( $N_{12}$ )를 구해 보았다. 수출의 상호의존도계수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간의 수출이 양국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 상호의존도계수를 살펴보면, <표 3-5>에서 나타났듯이 2007년 0.02, 2009년 0.03, 2011년 0.03, 2011년 0.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만 5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최근 상대국에 대한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민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의존을 하고 있는 주요 시장이 되고 있다.

<표 3-5> 중국과 한국의 무역의존도 지수

| 중국과 한국의 상호 무역의존도(trade-dependance)         |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0.01                                       | 0.02  | 0.02  | 0.03  | 0.03  |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0.06                                       | 0.07  | 0.09  | 0.11  | 0.12  |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의존도(uni-trade dependence)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0.02                                       | 0.02  | 0.03  | 0.04  | 0.04  |

자료: 무역협회 DB를 이용하여 계산

그러나 상호의존도계수의 문제점은 소국과 대국 간의 경제규모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게 다룬 것이고 개별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적 수출의존계수( $\zeta$ )를 또

한 구하여 보았다.

$$C_{12} = (X_{i12} + X_{i21}) / GNP_1$$

여기서 일방적의존도계수와 상호의존도계수와의 관계는  $(1/C_{12} + 1/C_{21}) = 1/N_{12}$ 이다.

그리하여 먼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의존계수를 보면, <표 3-5>에서 나타났듯이 2007년 0.07, 2008년 0.08, 2010년 0.12, 2011년 0.13 등으로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의존계수는 2007년 0.02, 2008년 0.03, 2010년 0.04, 2011년 0.05 등으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최근 2007년부터 5년 동안 각각의 수출의존계수를 약 2배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에 의한 수출의존계수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의존계수보다 약 3배 정도 높으며 2007년 들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주요한 수출상대국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보다 더 주요한 수출상대국이 되어 가는 중요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 4) 한중 비교우위 품목

이상 각종 비교우위 지수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3-6>와 같다. 먼저 MCA지수의 분석결과 1998년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코드번호: 7),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품, 동물거트의 제품(코드번호: 8),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코드번호: 11),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그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코드번호: 12), 잡품(코드번호: 20), 품목이었으나, 2011년에는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품, 동물거트의 제품(코드

번호: 8),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 부분품(코드번호: 16),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관련품(코드번호: 17),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그 부품(코드번호: 18),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코드번호: 19),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총 8개 품목이 되었다.

한국이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은 모두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품목으로 1998년 기준 중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은 식물성 생산품(코드번호: 2), 동식물성의 유지 및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코드번호: 3),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트, 기타 조물재료제품, 농, 지조세공물(코드번호: 9), 무기, 총 포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코드번호: 19),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코드번호: 21),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식물성 생산품(코드번호: 2)과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코드번호: 21)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진주, 귀석, 반귀속, 귀금속, 귀금속입힌 금속, 그 제품, 모조신변장 식용품과 주화(코드번호: 14)은 비교우위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SI분석결과를 보면, 1998년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화학물 및 관련제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 두 개 산업이었으나, 2011년 음료 및 담배가 추가되어 세계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1998년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의 세 개 산업이었으나, 2011년에는 음료 및 담배 산업의 비교우위가 한국으로 전환되고, 광물성연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IIT지수 분석결과를 보면, 1998년 IIT가 높은 산업은 기타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이었으나, 2011년에는 여기에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제품의 세 개 산업이 추가되었다. IIT가 낮은 산업은 1998년 식품 및 산동물 산업이었으나 2011년에는 음료 및 담배, 광물성연료, 운할

유 및 관련물질 산업으로 변화였다. 그러나 1998년과 2011년 모두 농식품 및 광업  
관련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비교우위가 낮은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음료 및 담배, 광물, 화학물,  
기계류, 기타 제조제품이다. 반면에 식품, 비식용원재료, 왁스, 재료별 제조제품은  
한국에 비해 중국의 경쟁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우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심화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이들 2국간의 기술력 격차는 축소되고 있어, 향후 중국산업의 경  
쟁력은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3-6> 한중 비교우위 품목

| 분석 방법   | 1998  |   | 2011   |  |
|---------|---|---|--|--|
|         | 한국 비교우위 품목  | 중국 비교우위 품목  | 한국 비교우위 품목   | 중국 비교우위 품목   |
| MCA분석결과 | 7.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br>8.원피, 가죽, 모피 등<br>11.방직용 섬유와 그제품<br>12.신발류, 모자류 등<br>20. 잡품 | 2.식물성 생산품<br>3.동식물성의 유지 등<br>9.목재와 그 제품 등<br>19.무기, 총포탄 등<br>21.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 7.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br>11.방직용 섬유와 그제품<br>12.신발류, 모자류 등<br>16.기계류와 전기기기 등<br>17.차량,항공기 등<br>18.광학기 등<br>20.잡품<br>21.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3.동식물성의 유지 등<br>5.광물성 생산품<br>9.목재와 그 제품 등<br>14.진주,귀석 등<br>19.무기,총포탄 등 |
| TSI분석결과 | 화학물 및 관련 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  | 식품 및 산동물<br>음료 및 담배<br>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 음료 및 담배<br>화학물 및 관련 제품<br>기계 및 운수장비  | 식품 및 산동물<br>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br>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
| IIT분석결과 | IIT가 높은 산업:<br>기타제조제품,<br>기계 및 운수장비   |   | IIT가 높은 산업:<br>동식물성유지 및 왁스<br>화학물 및 관련제품<br>재료별 및 제조제품<br>기계 및 운수장비<br>기타제저제품  |  |
|         | IIT가 낮은 산업:<br>식품 및 산동물   |   | IIT가 낮은 산업:<br>음료 및 담배<br>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  |

## IV. 한중 무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한중 무역구조의 문제점

#### 1) 무역수지 불균형 지속

앞서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간 수출입구조를 보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무역은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수출입은 불균형상태로 한국의 대중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적자폭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3년 이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8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88억 달러였다. 2003년부터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417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도 무역적자는 479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에 있어 이처럼 극심한 무역적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 가) 한국의 보호무역 강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조치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의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을 보호해 왔다. 한국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27개 항목의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조절 관세 중 17가지 항목의 대부분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비관세방벽으로 인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과일류, 돼지, 소 등의 우제품, 의약품 등의 품목은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 이들 상품에 대해 주로 검사, 검역 및 안전기준을 수단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품 검사 검역과정에서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6%의 수출검사를 실시한다면, 미국 등의 국가에는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율이 3%정도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국산 수입상품의 품질 및 각종규격조건에 대해,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나) 가공무역으로 무역불균형 초래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은 생산, 가공무역의 거점을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다. 그 결과로 우선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품은 가공 후 제품이 모두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한 쌍방간의 무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외자기업(한국)이 한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 포장 과정을 거쳐 상품화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게 되면, 원래는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인데 제품 원산지가 중국으로 변하여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국가와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반면 원재료 및 부품은 한국에서 대량 수입함으로써 한국과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이다.

#### 2)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제 2장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 세계 및 대 중국 수출입 구조를 보

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 한중 간 수교 이후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도의 사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11년 약 20%로 높아짐으로써 한국의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수출 환경을 평가해 보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여건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중국산완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출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수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양국간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의 리스크에 한국의 수출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는 경우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대중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제2장의 한중 품목별 수출입구조를 보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주로 기술집약적 제품이다. 반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매우 노동집약적 상품위주이다. 또 앞서 4장의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결과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기계류 및 부분품과 같은

기술집약적 제품이 많았고, 중국의 비교우위 제품은 식품과 방직물 등 노동집약적 제품이 많다.

중국의 대 한국 수출구조 변화를 보면 2005년과 2007년 동안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제품은 여전히 농산물과 광산물 등 자원이 많았고,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기술수준이 낮았다. 중국의 대 한국 수출품목은 대부분 가공, 조립 제품이었으며, 화공, 강철, 운수설비 등 자본집약적 제품은 수출 실적이 저조하였다.

<4-1> 중국의 대 한국 수출구조의 변화(주요 품목)

(단위: 억 달러, %)

| 순<br>위 | 2005년       |      |      | 2011년   |       |       |
|--------|-------------|------|------|---------|-------|-------|
|        | 수출상품        | 수출액  | 비중   | 수출상품    | 수출액   | 비중    |
| 1      | 석탄          | 6.98 | 6.18 | 전자부품    | 18.18 | 14.52 |
| 2      | 옥수수         | 6.60 | 5.64 | 공업요전자제품 | 12.62 | 10.07 |
| 3      | 사무자동화 설비    | 4.15 | 3.67 | 복장      | 11.37 | 9.08  |
| 4      | 바도체부품       | 3.51 | 3.10 | 농산물     | 9.94  | 7.93  |
| 5      | 석유 및 아스팔트오일 | 3.10 | 2.74 | 석탄      | 9.04  | 7.22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중국 수출구조를 보면 화공, 기계, 플라스틱 등 자본집약형 제품이 여전히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출제품이었으며,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유지되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전자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초급제품 및 생활용품, 섬유제품, 잡화 등 노동집약형 제품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4-2> 한국의 대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주요 품목)

(단위: 억 달러, %)

| 순<br>위 | 2005년       |       |      | 2011년 |       |       |
|--------|-------------|-------|------|-------|-------|-------|
|        | 수출상품        | 수출액   | 비중   | 수출상품  | 수출액   | 비중    |
| 1      | 석유 및 아스팔트오일 | 16.25 | 7    | 유기화학품 | 37.13 | 15.87 |
| 2      | 냉음극관 및 광전관  | 10.97 | 4.72 | 전자제품  | 19.07 | 8.15  |
| 3      | 유기화학품       | 5.78  | 2.49 | 유류제품  | 16.70 | 7.14  |
| 4      | 플리에틸렌       | 5.18  | 2.23 | 편직물   | 15.38 | 6.58  |
| 5      | 사무자동화설비     | 4.63  | 1.99 | 강철제품  | 13.70 | 5.8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한중 무역구조의 개선방안

### 1) 한국정부 차원

#### 가) 중국정부와 호혜 발전 추구

지난 10년간 한중 협력이 강화되어 온 것 이상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치중해 왔으며, 경제, 산업 위상에 있어서 한국이 다소 우위에 있었다.

중국을 아시아권에서 정치경제적 구심체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3국 체제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과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할 경우, 아시아 주류로부터 고립된 주변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sup>7)</sup>.

중국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하여 과거 대 북한관계를 유일한 축으로 한 단일외교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접촉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견지라는 명제 하에서 경제영역의 자본주의 성향의 지속적인 견지로 한국과의 교역은 한중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 중국에 대한

<sup>7)</sup> 유진석, 「한중 수교 10주년 회고」, 삼성경제연구소, 2002, 8, p. 47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통상정책 강화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하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한국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법적규제 및 시장차별정책 등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의 설립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관념에 따라 정부차원의 합의가 양국의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다. 특히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속 시키려는 입장에서 추진된 경제협력을 위한 각종 협의의 원활화로 대 중국 수출분위기를 크게 고양시켜 나가야 하고 중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sup>8)</sup>.

#### 나) 비관세장벽 조정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이미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한국측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성의를 가지고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해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산품수입의 반덤핑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 다) 중국 관련 정보 수집 강화

양국 경제교류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고 정관념의 극복이 선격상황이다. 변화하는 중국의 실체와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한국의 시각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말할 때 어느 지방

---

<sup>8)</sup> 김유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논문, 1999, p. 72

의 중국이나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원활한 공개화, 그리고 각 방면의 중국에 대한 활발한 심층연구를 필요로 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의 경험에 대하여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입수가 절대 필요하다. 더불어 입수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달 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간혹 중국에 투자 진출하고 있는 몇몇 한국 기업들이 기업체간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잘못 전달된 정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조정되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정부를 수집, 제공해 온 관련기관으로는 산업연구원, 대한 무역진흥공사, 민간경제협의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이들 각 기관에서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중국 경제일반 및 한중 경제교류와 관련된 연구,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 연구 결과가 더욱 발전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차원의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각 기관의 중국관계 담당자 및 기타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라) 대 중국 통상협상능력 강화

2005년 기준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행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총 31건이며 이중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1건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한 반덤핑 조치의 약 70%를 차지해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가 인정하는 규정조치인 반덤핑과 세이프가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한국제 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플라스틱 관련제품, 화학섬유제품, 철 강제품 등 제품의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강 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저가 수출을 지향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압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조건에 따라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 쿼터대상품목의 연 간수입쿼터를 매년 15%씩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이 약 한 한국기업으로서는 완성차 투자를 부품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순한 무역방식으로는 대 중국 무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 중 무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수출입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시장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중 국시장에서 상품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를테면 중국인의 생활습관, 소비심리, 시장지역특성, 유통경로 등 많은 변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국적인 접근방식으로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 한국기업의 차원

### 가) 중국시장 개척 강화

#### ① 경쟁력 위주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 노력 강화

한국 기업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기회이자 위협이다. 중국시장의 관세, 비관세장벽, 업종별로 존재하던 법규, 정책적 진입장벽, 관료적 유통장벽 등 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인바, 중국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경 쟁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하의 중국진출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지금까지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원가 위주의 투자전략은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점차 “양”보다는 “질” 위주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국내 우수 국유기업, 외국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위주의 중국시장접근이 필요하며, 본사 핵심역량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진입전략과 진출분야, 투자입지, 파트너의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무역 투자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 하겠지만, 승용차, 하이테크가전, 통신 등 일부 유치산업분야는 비교적 높은 관세와 구입부조금 등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 승용차, 하이테크가전, 통신 등 유치산업 분야의 부품, 반제품 수출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투자 진출 기획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송기기, 전자전기용부품, 부분품, 첨단소재, 농업용 생산재, 선진기술,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설비 분야 등의 부품이나 부분품 수출, 라이선싱, 합자투자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 ② 중국시장으로의 진입방식 다양화

지금까지 한국의 중국시장 진입방식은 투자위험과 통제력이 비교적 큰 기업 신설형 투자, 그 중에서도 단독투자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어 외자기업의 진입이 급증하고 중국시장 내 외자기업 간, 내외자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기업신설형 투자만으로는 중국시장에 대한 즉시 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인수 합병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투자가 아닌 기술 라이선싱 수출, 프랜차이즈, 경영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하거나, 진입방식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고정비용과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 ③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중국 무역 확대

중국이 세계우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글로벌 소싱(Global-Sourcing)기지로 전 환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만으로는 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주력 수출제품의 중국 내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1/3이상이 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 중국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결합하 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서비스분야와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강화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국 내의 중국계 유통기업과 다 국적 유통기업을 통한 다양한 수출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 ④ 중국시장에서 현지 마케팅강화

중국의 시장 환경이 WTO 가입 이후 개선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리스 크도 감소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유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중국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고, 그만큼 이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수급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 판매능력의 조절이 더 중요하게 되는바, 이제는 중국에서도 품질, 서 비스 기능이 중요하고, 광고, 마케팅 등 판매 전략이 중시되는 시대가 초래할 것이 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투자노력의 확대, 중국에 대한 투자위 험 노출관리가 중요해진다.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경우 현지 판매, 유통네트워크 의 구축과 마케팅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본사도 현지 자회사에 마케팅 노하 우, 자금, 인력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고증가, 운전자금 부족에 따른 현지 경

영활동의 축소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나) 비가격 경쟁력 강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서 중국상품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품, 기술을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강한데다가 중국인의 소비수준과 취향이 높아져 중국내수시장에서조차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시장선점 경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가격경쟁력은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서비스 등을 말하는데, 결국 산업, 기술구조의 고도화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다) 수출상품의 구조 전환 가속화

현재 한국의 주종 수출 상품인 전기전자 분야와 플라스틱, 화공제품 등은 중국이 집중 육성하려는 지주산업에 속해 조만간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수출 주도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수출비중은 낮지만 중국의 필요가 급증하는 공업용 방직품, 비철금속, 광학 및 의료정밀 기기, 건강위생식품, 환경관련 제품, 특수강 등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sup>9)</sup>.

### 3) 중국정부의 차원

중국정부의 무역 역조를 해결해야 한다. 한중 수교 후 10여년 동안 계속 무역역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조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무역역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규

<sup>9)</sup> 조수란, 「한중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12, , p. 57.

모 또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면 이는 향후 양국 교역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 제시하는 대한 무역역조에 대한 해결책은 양국무역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한 무역역조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 양국 무역의 균형적 발전은 실현 가능한 문제이다. 양국 경제구조, 특히 1995년~2002년 기간 동안 양국 주요 무역품목을 볼 때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상호간 필요한 상품의 종류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상품 구조는 양국의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생각해 볼 때 균형적 무역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먼저 한국은 중국상품의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물론 중국기업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시장을 개척해 대 한국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 4) 중국기업 차원

##### 가) 반덤핑 전문인원 양성

중국의 대외경제위원회 산업피해조사국은 2002년부터 중국하문, 중국자동차공회, 심천에서 중국반덤핑컨설팅 및 인재양성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북경시내 국내 기업을 대표할 반덤핑사건을 처리한 변호사는 별로 없다. 게다가 외자기업을 대표한 변호사도 30명이 넘지 못한 사정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 함으로써 전문인재 양성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다.

## 나) 수출상품 기술력 제고

중국수출상품 중 특히 농산품의 기술수준은 아주 낮은 편이다. 이것도 반덤핑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한중 양국간 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수출품의 품질, 기술함유량, 화학성분 등 문제들은 무역마찰을 유발한 원인으로 될 수 있다<sup>10)</sup>.

## 5) 한·중 무역구조의 조정

### 가) 한국 무역구조의 조정

첫째,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시장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이 중국 소비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새로운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수출에 나서야 한다. 또는 WTO 가입 10년의 과도기가 끝남에 따라 중국정부는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은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등 문화사업과 관광, 교육, IT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하고 제품관련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sup>10)</sup> 조수란, 「한중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12, p. 5.

마지막으로는 중국산 제품은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대체 확대 및 국산화율 제고에 대비해 지나친 중국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따라서 인민폐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3국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대중국 수출증가율 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수출선다변화 및 중국 외 시장에서의 수출마케팅 강화 등 포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나) 중국 무역구조의 조정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무역에 있어서 수출고급화 및 수입저급화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이 현상이 중국의 대 한국 수출구조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즉 중국의 대 한국 수출상품이 주로 자원 및 노동집약적 상품을 위주로 하여 이런 상품이 부가가치 및 기술함량이 낮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격려하고 타격을 받기 가장 쉽다. 중국의 수출무역 증가에 매우 불리하다. 2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의 가공무역은 이미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진화되었고 가공절차도 증가하고 있다. 또는 산업라인이 연장되고 있고 일부 고신 산업의 상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대 한국 수출상품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중국의 대 한국 수출총액으로 하여금 비교적 대폭 증가할 수 있으며 한중 수출입의 기본적인 균형을 이룰 것이다.

대한국 수출상품구조의 조정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먼저 무역범위를 확장 하여야 하여 수출상품의 다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발전예 따라 일부 기술함량 및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런 상품을 예를 들어 전기 기계 제품 부품 및 완제품 등 한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수출상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되도록 빨리 “저렴한 가격

으로 승부” 및 “수량으로 승부”하는 것에서 “품질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야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경쟁속에는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으며 수출 상품으로 하여금 진정한 높은 외화 획득 상품이 되게 하는 동시에 무역 마찰 등 특히 기술적 무역장벽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한국 수출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한국 노동력 수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 국내 노동력의 부족 및 한국이 외국에서 공사 청부 중 외지노동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격한 노무자를 고르고 조직하여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 동시에 사후 관리 작업을 잘하여 대외 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한중 간 기술무역의 추진

또한 한중 양국은 양국의 기술무역을 대대적 발전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이 자동차, 전자, 조선 및 통신설비 등 영역에서의 응용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중국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개선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항공 우주비행, 생물 공학, 농산품의 품종 개량, 및 전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측면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기술 합작 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중 양국은 기술 합작 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중 양국은 기술 영역의 합작을 강화시키면 신제품 연구·개발을 하고 양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양국 상품무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3. 한중 무역 전망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못한 성장단계로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한중 교역 추이 전망을 보면 2012년에는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360억 달러, 2013년에는 무역액은 2,610억 달러, 2015년에는 한중 총 무역액은 3,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전기 전자 제품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을 것이며, 그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디지털화 및 IT 발전의 영향과 한중간 산업 내 분업 확대에 힘입어 2012년 단일 업종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공업 제품은 중국의 석유화학 분야 자급률이 크게 제고되는 2011년까지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중국의 수입 대체로 교역비중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류는 중국의 직물, 의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에 비추어 이에 소요되는 원료, 원자재의 수입 수요 증대로 대 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그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역시 중국의 생산설비의 IT화, 전자와 자동차 산업 발달에 힘입어 수출에서의 비중이 일정한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품목별 수입에 있어서는 전자 전기 제품은 2013년경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그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 중국 현지 생산 투자가 확대될 것이나 점차 중국 현지 생산부품의 활용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류 특히 자동차 등 운반기계류 분야와 자동차 산업 발달로 가공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부품 등에서 상당 부분 대중국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섬유류의 경우 중국 섬유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특히 직물, 의류 쪽에서 상당히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sup>11)</sup>.

중국의 GDP 연간 성장률을 7.3%로 가정할 때 2012년에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

<sup>11)</sup> 진영량, 「한중 무역구조의 추이와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협회, 2007, p. 57.

는 3조 달러, 연간 수입규모는 1조 달러를 넘는다. 향후 중국의 방대한 시장규모는  
한중의 무역발전에 중요한 엔진역할을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비교우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분석을 위해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국의 연도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가공단계별 무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중간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등을 산출하여 비교우위품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에 기초하여 한중간 무역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연도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대 중국 수출액은 10억 달러에 불과하여 한국수출의 1.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기준으로 대 중국 수출액이 913억 달러로 총 수출의 21.7%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1991년 34억 달러로 총수입의 4.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기준 769억 달러로 총수입의 17.7%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총 무역기준으로는 1991년 한국의 대중국 총 무역액은 44억 달러로 전체의 2.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기준 1,683억 달러로 1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무역수지를 보면 1991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였으나 1993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 분석결과 한국은 중화학공업분야와 반도체,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등 기술집약형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중국은 1차 산품을 비롯한 천연제품 등 노동집약형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에도 경쟁력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점유율을 각국의 특정국에 대한 총수출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수이다. 특정 수출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이 대략 일치한다는 점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국 경제발전단계의 시차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찰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비교·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부분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경쟁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2007년 들어 지속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중 2국간 교역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이로 인해 한중 2국간 경제 및 무역관계는 매우 긴밀해지면서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과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대중국 투자기업은 핵심부품을 모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완제품을 모국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을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대중국 직접투자는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중 2국간 경쟁력 수준차이 축소 및 의존관계 심화 등의 변화는 상대국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동시에 지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세계무역 흐름 속에서 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국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본 연구가 전개한 한중 2국간 산업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2국간 협력관계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 차원에서 중국정부와 호혜 발전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 완화하고 대 중국 통상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통상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중국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시장으로 진입 방식의 다양성을 꾀하고, 무역과 투자의 결합을 통한 대 중국 진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정부 차원에서는 무역 역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 차원에서는 수출기업 상호 정보 교환, 협동조합 구성, 공동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반덤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상품의 기술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시장잠재력이 있는 나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무역구조와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교역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대부분 국내 문헌, 통계자료 정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향후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업차원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정리에 있어서도 자료의 분석보다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리차원에서 이루어져 향후 실제적인 실증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승진, 「아태경제협력(APEC)제국의 무역구조 변화추이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무역연구원, 2010.
- 김주현,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현대경제연구원, 2008, 10.
- 김윤수,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대중국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0.
- 박경진, 「수출상품의 경쟁형태 및 비교우위 구조분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11.
- 박재진, 「다양성 및 품질의 산업내무역: H-O-R 이론의 확장」, 『경제학논문집』 제9집 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2010, pp.27-58
- 박찬일,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및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한국경제연구』 7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pp. 155-175
- 리원원, 「한중 교역의 현황분석과 교역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오관립,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이경숙, 「한·중·일의 가전산업 교역구조와 경쟁관계 변화 분석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7-3, 산업연구원, 2007.
- 이상호, 「우리나라 수출입구조 특징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10.
- 유진석, 「한중 수교 10주년 회고」, 삼성경제연구소, 2002, 8.

- 이 천, 「한중간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응방안」,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재득, 「중국과 한국의 제품별 산업내무역, 비교우위 및 무역수지기여도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이승신, 「한·중·일 3국의 비교우위 패턴 변화 특징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산업연구원, 2010.
- 이승신, 「2006년 한중 무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2007, 8.
- 양편섭, 「한·중 간 교역구조 분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issue paper 06-11, 2009.
- 양평섭,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2.
- 이경숙, 「한·중 가전교역구조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8, pp. 22-34.
- 이준엽,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체계 연구」, 『한국 경제연구』 제10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pp. 209-220
- 이재득, 「동아시아국가들의 국제무역승수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3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pp. 5-25
- 조수란, 「한중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12.
- 진영량, 「한중 무역구조의 추이와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협회, 2007.
- 황윤진, 「유형별 산업내무역패턴의 변화와 성장」, 『무역학회지』 제32권 1호, 한국무역협회, 2010, pp. 307-333
- 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 분석」,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9.
- 최해범, 「한중 무역구조의 실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

## 2. 국외문헌

- 1) Balassa, B,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  
in Balassa, B, ed, 『Changing Patterns in Foreign Trade and  
Payment』 , New York: Hooper, 1965.
- 3) Gracia-Herrero, A. & Koivu, T, 「 China Exchange Rate Policy and Asian  
Trade」 , Working Paper No.282, BIS, .2010.
- 4) Hart, Jeffrey A, Rival Capitalis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5) Koopman, R., Wang, Z. & Wei, S.J., 「 How much Chinese Exports is Really  
Made in China? 」 , Working Paper No.14109, NBER, 2010.
- 6) OECD, 「The Annual Report of OECD」 , 1992

## 3. 인터넷 자료

- 1)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3)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4)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5)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6)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ABSTRACT

##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Structure of Korea and China

Bin Du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Choon Kim

Since the Korea-China diplomatic tie has been established in 1992,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not only just in the field of economic relations but in other areas. Two economies have a strong compatibility with huge cooperative potential in trade and investment. In 2011, China beca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 as well as investment for Korea while Korea became the third-largest trade partner for China.

This thesis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and suggest several ways to promot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or China the most serious problem is its continued trade deficit vis-à-vis Korea. Since 1992, while the trade volum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skyrocketing, Korea's exports to China have grown significantly. However, China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trade deficit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the problem lies in deepening trade dependency on China. After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the Korea and China in 1992, the importance of China as an export market has been growing and consequently, Korea's export dependency on China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is Dependency on China has risen from 3.5% in 1992 to 20% in 2011, which means that Korean economy became very sensitive to the changes of Chinese economy.

Third, in terms of Korea-China trade structure by industry, Korea export technology-intensive goods while those of China are composed of labor-intensive goods.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ology-intensive ones such as machinery and components while most of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items were labor-intensive products such as foods and textiles.

Lastly, the problems of two countries to promote trade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a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hinese government and lower a range of non-tariff barriers to Chin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trade specialists in China so as to strengthen its trade negotiation power with China. Aside from the government, businesses should reinforce their efforts to penetrate and explore the Chinese market and develop competitive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dverse balance of trade. Also, Chinese businesses should try to exchange mutual information among exporting companies, to organize a cooperative union, and to protect mutual benefits while cultivating specialists in anti-dumping in relation to trade disputes and increase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their export products.